

'56억원 대박 잡아라'...LPGA 최종전 우승 누구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22일 개막...한국 선수 11명 출격 양희영 2연패·유해란 시즌 2승 도전...세계 1위 코다와 경쟁

'우승하면 누구라도 상금왕.' 우승 상금이 400만달러(약 55억7480만원)에 이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오는 22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총상금도 1천100만달러(153억3840만원)로 어마어마하고, 우승자에게는 무려 400만달러를 몰아준다.

400만달러는 지금까지 여자 프로골프 대회 우승 상금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총상금 1200만달러를 내건 US여자오픈 우승자 사소 유카(일본)가 손에 넣은 상금 240만달러보다 훨씬 많다. 준우승자에게는 100만달러(13억9460만원)를 준다.

출전 선수는 단 60명이다.

18일 끝난 더 안나카 드리븐까지 시즌 내내 받은 CME 글로벌 포인트 랭킹 60위까지 출전권을 부여했다.

컷이 없고 꼴찌를 해도 5만5000달러(7669만원)가 돌아간다.

워낙 우승 상금이 많다 보니 올해 상금왕은 이 대회 우승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금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가 7승을 쓸 여 답으면서 거둬들인 시즌 상금 총액이 416만

4430달러로 이번 대회 우승 상금과 비슷하다.

코다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7승을 하고도 상금왕을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론상 출전 선수 60명 가운데 누구라도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번 시즌 상금왕에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출전 선수 60명 가운데 한국 선수가 11명이다. 유해란(CME 글로벌 포인트 2위), 김세영(10위), 고진영(12위), 최혜진(17위), 임진희(22위), 김아림(25위), 안나린(29위), 양희영(38위), 신지은(42위), 이미향(56위), 김효주(59위)가 상금왕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이번 시즌에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낸 유해란과 작년 이 대회 챔피언 양희영이 눈에 띈다.

고진영은 2020년과 2021년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김세영은 2019년에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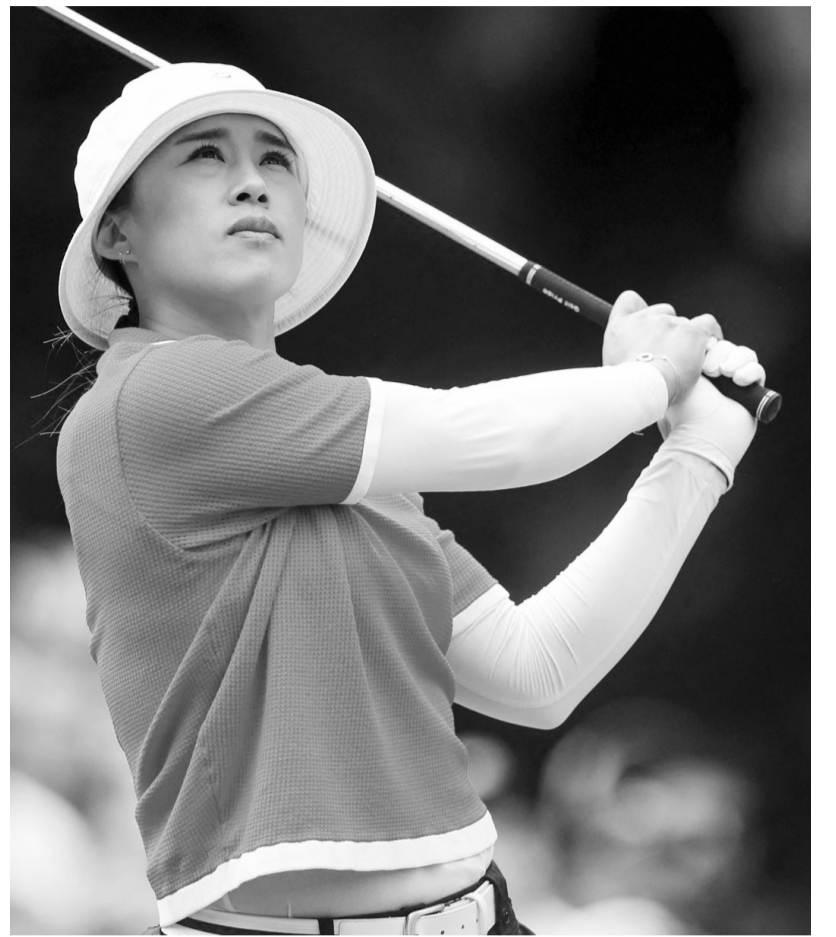
김아림은 지난 10일 롯데 챔피언십 우승으로 자신감이 충만했다. 임진희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는 사이고 마오(일본)를 마지막 대결에서 뒤집겠다는 각오로 도전장을 냈다.

비록 막차로 출전권을 땀지만 2015년부터 단 두 번 이 대회에서 빠졌던 김효주는 막판 스퍼트를 노린다.

세계랭킹 1위 코다가 역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유해란



양희영

코다는 두 달 동안 필드를 비웠다가 복귀하고서 18일 더 안나카 드리븐에서 거뜬하게 우승했다. 이미 올해의 선수 수상을 확정된 코다가 우승하

면 시즌 상금 800만달러를 돌파하는 신기원을 이룬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등 화려하게 부활한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후루에 아야카(일본), 인뤼닝(중국), 사소, 릴리아 부(미국) 등도 뒤집기 상금왕을 노린다. /연합뉴스

광주 경규민·진혜주, 전국대회 포켓9볼 복식전 금

전남 최호일·김행직 3쿠션 2위

광주·전남 당구선수들이 강원도 양구에서 끝난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2024 전국당구대회'에서 활약했다.

광주당구연맹 경규민·진혜주는 포켓9볼 복식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경규민·진혜주는 대회 결승에서 이종민·김정현(경남)팀을 상대로 8-4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고태영·김보건(경북)팀과의 32강에서 8-1로 승리한 뒤, 김범서·한소예(충남)팀, 윤동진·장문석(전남)팀, 서성호·양용준(경기)팀을 연달아 8-4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합을 맞춘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들은 맹훈련을 통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까지 차지했다. 진혜주는 광주 소속이 된 지 2년 차, 경규민은 올해 1월 광주당구연맹에 입단했다.

진혜주는 '개인전에 비해 복식에는 자신이 없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일자공' 장거리 퍼팅을 하루에 4시간씩 500개 정도를 쳤다. 연습을 많이 한 덕분에 결승까지 안정적으로 합을 맞추며 갈 수 있었다'며 "광주당구연맹에서 많이 챙겨주셨



지난 17일 강원 양구에서 마무리된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2024 전국당구대회에서 진혜주(왼쪽)와 경규민이 포켓9볼 복식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한당구연맹 제공>

다. 박준규 회장의 아낌없는 조연과 지원, 김연석 전무이사님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진혜주는 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24아시아 남녀 10볼 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선다.

경규민은 "복식에서는 4년 전 이후 첫 우승인데 해주 누나랑 우승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 훈련하면서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며 "올해 국내 마지막 대회를 금메달로 마무리한 만큼 잘 연습해서 내년에도 전국체전을 비롯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당구연맹의 최호일·김행직팀은 캐롬 3쿠션 일반부(복식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

8강에서 안지훈·황정석(전북)팀을 꺾은 이들은 4강에서 임형목·조치연(경기)팀을 30-24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뒤, 임준혁·김진열(경기)팀에 23-30으로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박정현(이하 전남)은 캐롬 3쿠션 여자일반부 3위, 장문석은 포켓10볼 남자일반부 3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SM 클래식서 PGA 투어 출전권 잡는다"

21일 시아일랜드 리조트서 개막 김성현·노승열 등 순위 상승 노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4시즌 마지막 대회인 RSM 클래식(총상금 760만달러)이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조지아주 세인트 시먼스 아일랜드의 시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열린다.

RSM 클래식은 9월 초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종료 이후 이어진 가을 시리즈 8개 대회 중 마지막이자, 단련제로 돌아온 2024시즌 PGA 투어 대미를 장식하는 전체 47번째 대회다.

이 대회 이후 PGA 투어는 내년 1월 5일부터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리는 2025시즌 개막전 더센트리까지 한 달여의 휴식에 들어간다.

RSM 클래식은 시아일랜드 리조트의 시사이드 코스(파70·7005야드), 플랜테이션 코스(파72·7060야드)에서 개최된다.

선수들은 1, 2라운드에서는 두 코스에서 번갈아 경기한 뒤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는 시사이드 코스에서 치른다.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이번 대회로 끝나는 만큼 아직 입지가 불안한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투어 대회 우승 경력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의 경우 이번 대회까지 페덱스컵 랭킹 125위 안에 들어가 2025시즌 투어 출전권을 받을 수 있으며, 126위부터 150위 사이 선수들에게는 조건부 시드가 주어진다.

가을 시리즈 종료 기준으로 페덱스컵 순위 51~60위 선수들에게는 2025시즌 초반 두 차례 시그니처 대회(AT&T 페블비치 프로암·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권을 주기에 이 순위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이번 대회가 의미를 지닌다.

한국 선수는 김시우, 이정훈, 김성현, 노승열, 배상문, 강성훈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를 32위로 마쳐 '톱50'을 확



김성현

보한 김시우는 지난달 말 일본에서 열린 조조 챔피언십 이후 4주 만에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페덱스컵 랭킹 101위인 이정훈도 출전권 확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김성현(페덱스컵 순위 130위), 노승열(178위), 배상문(215위), 강성훈(221위)은 이번 대회에서 순위 상승이 절실하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신고했던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는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지난주 버터필드 비류다 챔피언십에서 아빠가 된 지 6일 만에 PGA 투어 첫 우승의 겹경사를 누린 라파엘 캄포스(푸에르토리코)도 출전해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순천강남여고, 학교스포츠클럽축전 전국배구대회 여고부 준우승

순천강남여고 배구부가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강남여고는 지난 16-18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치러진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배구대회'에서 여고부 2위를 기록했다.

전남 대표로 출전한 강남여고는 풀리그로 진행된 예선에서 고운고(세종)에 2-1승, 하양여고(경북)를 상대로는 2-0승을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강남여고는 이어 김화고(강원)와 기장고(부산)를 각각 2-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지만, 거제상문고(경남)에 0-2패를 당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도교사인 손배민 체육교사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멋진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 준우승이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발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남여고의 다음 목표는 '내년 대회 우승'이다. 손 교사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의 최대 장점은 탄탄한 수비 능력이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지역 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